

인디 뮤지션의 삶과 직업 만족도에 관한 연구

Evaluation of the Life and Job Satisfaction of Indie Musicians

정윤경*, 진경란**, 김종하***

순천향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동의대학교 디지털문화콘텐츠학전공**, 한라대학교 미디어콘텐츠학과***

Yoon-Kyung, Chung(ykchung@sch.ac.kr)*, Gyongran, Jeon(jeongr@deu.ac.kr)**,
Jongha Bell Kim(bellkim@halla.ac.kr)***

요약

인디뮤지션에 대한 사회적 의미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디뮤지션을 학술적인 차원에서 이해하기 위한 시도와 이들을 위한 제도적 평가는 미흡했다. 본 연구에서는 105명의 국내 인디뮤지션에 대한 온라인 설문 조사를 통해 이들의 음악 환경, 음악 활동의 특성, 인디뮤지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작업 시설과 50석 이상의 공연장 이용 기회가 부족하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활동 경력이 6년 이상인 집단의 경우, 대형 공연장 공연 기회가 많으며, 음악 활동 횟수와 음악 활동 수입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디뮤지션의 만족도에는 음악활동 횟수, 사회적인 인정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디뮤지션에 대한 지원제도는 다양한 영역에서 제공되는 지원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집중해야 할 것이며, 정부가 모든 것을 해야 한다는 가부장적 사고를 버리고 다양한 부문과의 조율을 통해 인디뮤지션의 창작을 독려해야 할 것이다.

■ 중심어 : | 인디뮤지션 | 대중음악 | 인디문화 | 지원제도 | 직업만족도 |

Abstract

Academic interests have long left from the field of indie musicians, despite of their social and cultural values. This also means indie musician policies have enjoyed lack of evaluation.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indie musicians' environment, music activities and their job satisfaction by employing online survey method which were conducted over 105 Korean indie musicians. Survey results show that indie musicians feel the lack of performing facilities that can hold over 50 seats. Indie musician group with experience of 6 years and more has more chances of performing at big facilities. This group also tends to play more often, and earn more money from music activities. Also, analysis shows that satisfaction level of Indie musicians is affected by two factors - music activities and social reputation. From the results, we can conclude that indie musician policy needs to build grounds to harmonize supports from various field rather than play as a single supporter. Patriarchal attitude that government should do and can do everything is no more in effective at least in indie music field.

■ keywords : | Indie Musician | Popular Musician | Indie Culture | Cultural Policy | Job Satisfaction |

* 본 논문은 순천향대학교 학술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하였음.

접수일자 : 2015년 10월 23일

수정일자 : 2015년 12월 01일

심사완료일 : 2015년 12월 15일

교신저자 : 정윤경, e-mail : ykchung@sch.ac.kr

I. 서론

대중음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때는 싸구려 문화, 하층민의 전용물로 폄하되던 대중음악이 지식사회, 창조경제의 도래와 함께, 도시 브랜드 가치와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콘텐츠로 대접받고 있는 것이다. 산업, 경제적 차원뿐만 아니라, 한 시대를 대표하는 문화적 표상이라는 점에서도 대중음악의 의미는 남다르다. 대중음악의 가치가 이처럼 재발견되고 있는 것은 전 세계 국가에서 공통된 현상이지만, 유독 한국에서 더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K-pop의 전지구적 확장이 이끌어낸 경제적, 문화적 성과에 고무된 탓이라 할 수 있다.

국내에서 대중음악이 지니는 권력은 음악인을 꿈꾸는 청소년 군단과 젊은이들의 규모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크고 작은 가수 오디션 프로그램에 거대한 군중이 몰려들고 있으며, 각 대학에 실용음악과가 대거 신설되면서 매년 3천 여 명의 음악전공자들이 사회에 유입되고 있다[1].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디선의 좁은 문을 통과하거나 기획사 견습생이 되는 수는 제한적이며, 특히 대중적으로 노출되거나 상업적 성공을 거두는 특권은 지금껏 소수에게만 허락된다. 다수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진입 장벽이 높지 않은 독립적인 창조 영역, 즉, 인디뮤지션이라는 무리에 합류하는 것이다. 인디뮤지션이 상대적으로 수월한 출발점이 되는 것은 인디뮤지션이 되기 위해 특별한 기술이나 경험이 요구되지 않는 까닭이다[2]. 더욱이 간편한 홈레코딩을 통해 DIY 레이블 제작이 가능해짐에 따라, 1인 레이블 또는 마이크로 인디의 시장 진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3].

소수 대형 기획사 중심의 산업 구조[4], 아이돌 스타 위주의 장르 편중, 10대 시청자 위주의 음악방송이 심각한 불균형을 낳고 있는 국내 대중음악 문화 속에서 [5] 인디뮤지션의 존재는 분명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주류 음악 산업에 의해 대변되지 않는 산업의 지평을 확장하고, 음악 산업의 토대를 견고히 하는 저력이 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회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간 인디뮤지션을 이해하고 공감하고자 하는 노력은 턱없이 부족했다. 인디 뮤직에 담긴 문화적 담론과 팬덤 문화에 대해서만

연구가 이어질 뿐, 그들은 누구이며, 그들이 처한 환경은 어떠한고, 특히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인디뮤지션의 삶을 지속하게 하는가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반면, 인디뮤지션의 문화적, 산업적 가치 부상에 따라, 인디 레이블 제작 지원, 인디 음악 신인 지원 프로젝트 등 이 영역을 진흥하기 위한 공적 사업이 확장되고 있는 추세이다. 안타까운 사실은 정책이 가져온 성과 평가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여겨져 왔으며, 이러한 지원제도가 인디뮤지션에 대한 촘촘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단초도 찾기 어렵다는 점이다. 학술 작업 역시 대부분의 관심이 산업적, 비즈니스 차원에 치우쳐 있다고 반성된다[6]. 특히, 공장형 생산시스템에 의해 만들어진 아이돌 문화에 집중되어 있거나[7], 대중음악을 돈벌이 수단, 국가 이미지 개선 수단으로만 이해할 뿐, 대중문화에 종사하는 개인들의 삶과 직업을 진중하게 이해하려는 자세는 부족했다고 평가된다.

본 연구는 그간 외면되었던 국내 인디뮤지션 개인의 삶에 한 걸음 다가가, 이들의 음악 활동 여건을 점검하고, 이러한 환경이 예술인으로서의 만족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최근 증가한 공적 지원이 인디뮤지션의 삶과 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도 검증해 볼 것이다. 구체적으로, 인디뮤지션의 작업 및 공연 환경, 음악인 활동 및 수입은 어떠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며, 이러한 특징과 더불어 뮤지션에 대한 사회적 인정, 지원 수혜 경험 이 예술인으로서의 만족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인디뮤지션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더해준은 물론, 부침을 거듭하고 있는 국내 인디뮤지션 정책을 평가하고 진단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국내 대중음악 정책 전반뿐만 아니라, 대중음악 산업의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II. 기존 문헌 검토

1. 인디뮤지션의 정의 및 특성에 대한 기존연구

모든 인디 문화는 상업적 주류 문화에 대한 반대급부

에서 출발한다. 인디 문화는 음악이 되었든, 또 다른 예술이든 장르에 관계없이 차별적이며, 반문화적, 아방가르드적이다[8]. 인디뮤지션 역시 스타산업의 상업주의와 한탕주의에 대항하여 새로운 음악 장르와 스타일을 시도하며, 음악의 자유와 뮤지션의 독립을 추구한다는 점[9]에서 인디 문화의 궤적을 유지한다. 이들은 주류 매체를 회피하는 언더그라운드 뮤지션의 소극성과는 대비되는데,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위해 독립된 장소 스스로 개척하는 적극적인 면모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10]. 이 같은 저항과 전복, 통제와 이성에 대한 도전 성향은 인디들조차 스스로를 주변적이라 생각하게 만들며, 이러한 차별화는 인디 집단 내부의 결속력, 친근감을 높이는 역할을 담당한다[11]. 인디뮤지션 대부분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 빈곤, 주변 계급의 문제는 동질적 삶을 영위하는 집단을 통해 위로받게 되며, 이들이 겪는 어려움은 오히려 결속력을 강화하는 기재로 작용하는 것이다.

최근 대중적 주목을 받고 상업적으로 성공하는 인디들이 증가하면서, 이들은 더 이상 단일한 기표 안에 뭉뚱그릴 수 없을 만큼 이질적인 양상을 띠기도 한다[12]. 오늘날의 인디는 메이저와 공생적,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집단이라 해석되기도 한다[13][14]. 심지어 현재의 인디는 주류 시장의 틈새를 공략하는 다른 유형의 상업 음악이라 이해되기도 한다[15].

이러한 인디뮤지션에 대한 인식 및 문화적 의미 변화에 힘입어, 최근 이들 분야에 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는 듯하다. 이 중 다수는 인디음악의 장르적 특성과 담론에 주목하거나[16-19], 소비 특성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20-22], 소수만이 인디뮤지션 개인의 삶과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들 연구에 의하면[9][23][24], 대부분 인디뮤지션의 삶은 여전히 빈곤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변화는 인디뮤지션 내부의 빈익빈 부익부만 키웠을 뿐, 열악한 창작 환경으로 고통 받고 있으며, 기초 생활조차 어려운 생활고를 겪고 있다는 것이다. 청년 유니온의 조사에서도 이러한 상황은 확인된다. 청년 뮤지션의 월평균 고정수입은 69만원에 불과하며, 응답자의 1/3이 경제적 곤경 탓에 음악활동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난다[25]. 해외에서도 이러한 상황은 유

사한 듯하다. 호주의 인디 종사자 중 절반은 연 1만 호주달러에 그치는 수익에 의존하고 있으며, 많은 돈을 버는 것과는 거리를 유지한다[2]. 이러한 궁핍한 삶을 자청하면서도 이들은 여전히 실험하고, 실패를 거듭하며 인디의 직업을 영위하는 것이다.

2. 인디뮤지션 지원 정책에 대한 기존연구

이상과 같은 논거는 최근 인디 음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증가하고 있는 배경이 된다. 즉, 대중음악에서 인디 음악이 지니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뮤지션들이 음악적 가치를 발휘하기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2011년 정부가 '대중문화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을 도입하면서, 인디음악을 위한 지원의 토대를 마련한 것은 이런 면에서 고무적이다. 인디 경연대회 지원, 홍대클럽의 인디음악 거점화 지원, 국내 대학 실용음악과의 케이팝 특성화 교육 기관 지원, 케이팝의 해외 진출 지원 등이 핵심 사업으로 포함되어 있다[26]. 아쉬움을 남기는 부분은, 지원 세부 사업 내용에서 드러나듯이, 지원의 초점이 양적 성과에 맞춰진 점이다. 합리성, 효율성을 중시하며, 지역협력 사업을 확대해온 2000년 이후 지원 정책의 조류[27]가 인디뮤지션 지원 제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와중에 2003년 도입되었던 인디레이블 육성 지원 사업은 지속적인 규모 감축을 거쳐 2007년 완전 폐지되었다. 인디뮤지션 내부적으로는 실효성을 인정받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적지 않은 아쉬움을 낳기도 했다[28]. 이 같은 제도적 부유는 정책 중심축이 부재하다는 비판으로 연결되기도 하며[29], 인디 공동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양적, 외형적인 지원에서 탈피하여 창의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선회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낳기도 한다[9].

인디를 위한 지원제도가 변동을 겪고 있는 것은 비단 국내만의 문제는 아닌 듯하다. 물론 문화 선진국에서는 대중음악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반론이 적고[7], 인디를 위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촘촘하게 마련되어 있지만, 전 지구적 제도 변화를 피해가지는 못하는 듯하다. 오래전부터 영미권의 문화정책은 지원과 규제, 예술의 관리로 이해되어 왔고[30], 이에 따라 대중음악 장려책과 규제

책이 동시에 도입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인 것이 사실이다. 특히 1990년 이후 대중음악 정책을 산업 정책과 결합하거나 보완하려는 시도가 증가해 왔으며, 도시 브랜드나 지역 경쟁력 확보의 디딤돌로 삼고자 하는 시도가 빈번해지고 있다[7].

이러한 추세는 정책적 기조 변화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2010년 스코틀랜드 문화 영역 지원을 위해 새롭게 설립된 크리에이티브 스코틀랜드(Creative Scotland)는 문화적인 차원이나 예술인보다 경제, 산업에 주력하고 있으며, 장기적인 성장보다 단기 목표에 치중하고 있다고 비판받고 있다[31]. 네덜란드 정부는 2011년 문화 예산을 25% 삭감하고, 민간 부문을 후원 주체로 참여하도록 하였다[32]. 네덜란드의 관대한 지원 정책이 예술인들로 하여금 공적 지원을 얻는데 지나치게 많은 에너지를 쏟게 만들며, 공적 지원을 위한 활동에만 몰두하도록 만든다는 비판[33]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또한 멜본 외곽의 인디씬을 문화 거리로 발전시키기 위한 호주의 노력은 인디뮤지션을 지역에서 추방하는 결과를 낳기도 하였다. 기업과 투자자들의 유치, 소비자 유입으로 지대가 상승하고, 인디뮤지션의 수입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급 도시로 탈바꿈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이 지역의 역동성과 다양성은 파괴되고, 어디에나 존재하는 흔한 복제 도시로 전락하였다는 평가다[2].

창조경제 시대의 대중음악 정책이 이처럼 표류를 겪는 이유는 음악이 경제적 가치와 동시에 미적, 정신적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음악 정책이 미적 가치와 상업적 논리가 충돌하고 타협하는 지점에 놓여 있기 때문인 것이다. 제한된 희소자원을 분배해야 하는 정책은 이러한 양극의 필요에 대해 경중을 가리고, 우선권을 결정해야 하는 부담을 지니게 되며, 결정을 뒷받침할 명백한 근거를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삶을 풍요롭게 한다는 식의 내적 가치보다는 산술적 경중을 헤아리기 용이한 경제적 가치의 설득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예술 영역뿐 아니라 산업,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 교육 등 복잡한 영역을 포괄하는 문화 영역의 정책[34]에서는 경제적 가치가 부각될 수밖에 없다. 실질적으로 오브리엔의 연구는 문화에 산

업적 가치를 부여하지 않으면 정책적 우선순위에서 밀려남을 알 수 있음을 입증한다[35]. 음악 정책이 다분히 정치적이라는 선언[36]은 이러한 점에서 타당하다.

이러한 문제와 더불어, 최근에는 지원의 효율성에 대해서도 일관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이 주목된다. 재정적 지원이 창의성을 유발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주장이 존재하는 반면[37], 예술적 창의성이 어떤 경우에 드러나는지에 대해서는 예측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기된다[31]. 예술가의 주된 창작 동기는 내적 욕구에서 출발하므로 자신의 예술관에 도움이 되는 외부 자원을 선택적으로 수용하며, 예술적 가치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지원은 경계한다는 것이다. 또한 자신만의 확고한 예술관을 정립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원이라는 외부의 개입을 경험할 경우, 후원자의 요구에 맞출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술적 독창성 발휘가 어렵다고 설명된다. 어떤 경우든, 공적 지원이 창의성을 유인하는 절대적 요인은 되지 못하는 것이다[33].

조중걸[38]도 공적 지원과 창조성의 인과관계를 부인한다. 물론 경제적 안정과 자유가 창조에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예술적 창작을 위하여 공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대가없는 지원은 없으며, 정부가 과세에 대한 대표권, 즉, 지원에 대한 가시적 성과를 요구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이러한 과세자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 예술가들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방해, 창작 정신에 대한 위협이라 반발하지만, 창작과 억압은 서로 배치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정부의 지원이 예술적 창작을 옹호하진 못하진 것은 보조금이 지향하는 덕목의 편향성 때문이다. 즉, 정부의 지원은 형평성, 접근성, 유대감, 국가적 정체성을 중요하게 간주하는데, 이러한 가치 편향성으로 다양한 욕구를 지닌 집단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시장을 통해 이루어지는 지원은 독립성, 합리성, 개성, 소비자의 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개인들의 자발적 기부에는 신뢰, 명예, 사랑, 관대함의 원칙이 비중 있는 잣대로 작용한다[32]. 이러한 해석은 정부 지원에서 부재되어 있는 덕목이 시장이나 시민을 통해 공급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각각의 지원 주체가 추구하는

다양한 가치, 목표, 규범에 의해 예술가의 창조성이 고르게 자극받으며, 내적, 외적 동기가 모두 반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예술인의 직업에 대한 만족감을 고무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예술가들이 지배적인 단독 후원자에 의존하는 것 보다는, 다양한 지지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프레이[39]의 주장은 설득적이다. 나아가 그는 정부의 지원은 예술가들이 다양한 재원을 배합할 수 있도록 도와야한다고 설명한다. 정부는 직접적인 지원뿐 아니라, 다양한 영역이 예술인 지원에 참여하도록 제도적 토대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한편, 창조영역 종사자들의 자아 만족감이나 내적 동기를 설명하는 동기구축 이론은 인디뮤지션 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적절한 잣대가 된다. 동기구축 이론은 창조영역 종사자들이 열악한 고용여건과 임금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직업의 길을 선택을 하는 이유는 바로 내적 만족도가 절대적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40]. 이에 의하면 규제나 진흥책, 인센티브 등의 개입이나 보상이 창작자들에게 협력적으로 받아들여질 경우, 개인이 느끼는 만족감이나 내적 동기가 상승하며[41], 예술적 성과를 높일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어떠한 요인이 국내 인디뮤지션의 만족도에 긍정적 기여를 하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정책 평가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정책적 방향 설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직업인으로서의 인디뮤지션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특히 인디뮤지션의 배경과 더불어, 이러한 배경에 따라 음악 환경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며, 음악 활동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매년 인디뮤지션 대열에 합류하는 젊은이가 증가하고, 이들이 지니는 의미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이들을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가

부족하였다는 반성에 기인한다. 두 번째 목적은 인디뮤지션이라는 직업적 충족감에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가를 평가하는데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술인은 공적 지원뿐만 아니라, 시장이나 시민의 지지를 통해 창작의 동기를 부여받고 있으며, 본 연구는 이러한 각 영역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음악 활동, 수입, 공적지원, 사회적 인정이 음악인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국내 인디뮤지션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음악환경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 연구문제 2. 국내 인디뮤지션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음악활동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 연구문제 3. 국내 인디뮤지션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1에서는 인디뮤지션의 성별, 연령, 학력, 음악 전공 여부, 활동기간, 활동 형태에 따라 작업시설, 공연장 이용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연구문제 2에서는 공연, 행사, 버스킹 등 총 활동 횟수, 음악활동을 통한 월평균 수입이 인디뮤지션의 배경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2. 연구방법

2.1 조사대상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선, 포털 검색, 인디뮤지션 사이트, 인디협회, 보도 자료 검색을 통해 국내 인디뮤지션의 리스트를 확보하였다. 인디레이블 이외의 소속사가 있는 경우는 제외하였고, 정규직 직장을 다니는 경우 역시 제외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총 852개 팀의 인디뮤지션 리스트를 확보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인디뮤지션을 임의로 추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다. 온라인 설문은 서베이몽키(surveymonkey.com)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개별 뮤지션의 이메일이나 휴대폰을 통해 링크를 전달하고, 설문을 독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설문은 2015년 1월 26일부터 3월 26일까지 진행되었다.

설문에 응답한 인디뮤지션은 148명이었다. 이 중 무응답 항목이 많아 분석에 적합지 않은 설문 43부를 제외, 최종분석에는 105명의 설문을 투입하였다.

2.2 주요 변인의 정의

① 작업시설 이용

작업시설 이용 변인은 인디뮤지션들이 음악 활동을 위해 필요로 하는 창작, 제작, 연습 등 작업시설이 충분한가에 대해 5점 척도로 질문, 변수화 하였다.

② 공연장 이용

공연장 이용 변인은 응답자 개인의 공연 시설 이용 용이성을 5점 척도로 질문하여 변수화하였다. 공연장 이용 변인은 공연법(제9조1)에 의거, 등록 의무 대상인 50석 이상과 등록 면제 대상인 50석 미만을 구분, 별도의 변수로 구축하였다.

③ 공연 횟수

공연 횟수 변인은 최근 1년 동안 공연, 버스킹, 행사 등을 포함한 음악 공연 횟수를 의미한다.

④ 총수입

총수입은 음악활동을 통한 월평균 수입을 의미한다. 기타 활동을 통한 수입은 이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⑤ 지원수혜경험

지원 수혜 경험은 재정지원을 포함 공적 지원의 수혜 여부를 의미하며, 더미 변인화하여 분석에 투입하였다.

⑥ 사회적 인정

사회적 인정 변인은 인디뮤지션을 사회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5점 척도로 질문하여 사용하였다.

⑦ 만족도

만족도 변인은 인디뮤지션 스스로가 뮤지션으로서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는가를 5점 척도로 질문하여 사용하였다.

IV. 분석 결과

1. 응답자 특성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본 연구의 응답자 특성을 살

펴보면, 총 105명의 응답자 중, 남성 뮤지션이 71.8%로, 남성 뮤지션이 여성 뮤지션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가 50%로 지배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대는 38.5%로 나타났다으며, 40대 이상도 11.5%로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이 60.3%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전문대졸은 11.5%로 나타났다. 고졸 이하 28.2%의 분포를 보여, 국내 인디뮤지션 집단이 비교적 고학력 소지자임을 알 수 있다. 음악 전공자와 비전공자의 비중은 유사하게 나타났다. 재학시절 음악을 전공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49.1%, 음악 비전공자는 50.9%로, 뮤지션의 직업을 위해 반드시 음악을 전공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응답자들의 뮤지션을 활동한 기간은 1년부터 32년까지 큰 폭의 차이를 보였으며, 평균 활동 기간은 8.1년이 었다. 인디뮤지션 활동기간이 1~5년인 응답자는 43.7%, 6년 이상인 응답자는 56.32%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 중 절반 정도는 솔로로 활동하고 있으며, 보컬 세션을 담당하는 뮤지션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중 보컬을 담당하고 있는 뮤지션은 68.6%였다. 또한 솔로 활동을 하는 경우가 43.7%, 2~4인 그룹 활동이 33.3%를 차지하였다.

2. 인디뮤지션의 특성에 따른 음악환경차이

응답자의 성별, 연령, 학력, 활동기간, 음악전공여부, 활동 형태에 따라 작업시설 이용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독립 변인은 존재하지 않았다. 즉,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작업 시설 이용 차별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작업시설 이용에 대해서는 5점 척도 평균 2.36점으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응답자들 성별, 연령, 학력, 활동 기간 등의 특성에 관계없이 작업 시설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하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공연장 이용에 대해서는 응답자 특성에 따라 다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50석 미만의 공연장 이용 기회는 응답자 특성에 따른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50석 미만의 공연장 이용에 대해서는 5점 기준 평균 3.24로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50석 이상의 공연장 이용 기회는 응답자의 배경 변인에 따라 이용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디뮤지션 활동기간 6년 이상인 집단이 5년 이하인 집단보다 50석 이상의 공연장 공연 기회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p < .005$). 또한 솔로로 활동하는 인디뮤지션보다는 그룹 활동 인디뮤지션이 큰 규모의 공연장 이용 기회를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이는 규모가 큰 공연장에서 공연할 기회는 경력 뮤지션과 그룹 뮤지션에게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주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역으로 활동 경력이 짧거나 솔로로 활동하는 뮤지션들은 큰 공연장에서 공연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대규모 공연 문화가 특정 인디뮤지션에게 쏠려있음을 함축하는 것이라 해석된다. 50석 이상의 공연장 이용은 평균 2.74점으로, 작은 공연장보다는 이용이 어려울 수 있다.

표 1. 응답자 특성에 따른 공연장(50석이상)이용 차이

		N	평균	F
활동기간	5년 이하	36	2.417	7.601*
	6년 이상	48	3.000	
활동형태	솔로	40	2.325	11.802**
	2인이상	45	3.044	

* $p < .01$, ** $p < .001$

3. 인디뮤지션의 특성에 따른 음악활동차이

인디뮤지션의 특성은 공연 등의 음악 활동 횟수와 수입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인디뮤지션의 특성에 따라 음악 활동 횟수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를 살펴본 결과, 뮤지션들의 활동 기간, 음악 전공 여부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인디뮤지션 활동기간이 6년 이상인 집단의 경우, 일 년 동안 평균 110.5회의 공연, 행사, 버스킹 등의 음악 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년 이하 집단의 평균 활동 수 29.0회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이다($p < .05$). 인디뮤지션 활동 기간이 긴 집단의 활동 횟수가 높게 나타나는 것은 경력이 이들의 활동에 유리하게 작용했기 때문일 수 있을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활발한 음악 활동을 하는 영위해온 인디뮤지션만이 현재 뮤지션 직업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음악을 전공한 인디뮤지션의 활동 역시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악을 전공한 인디뮤지션의 연평균 음악 활동 횟수는 126.7회에 달하는 반면, 비전공자의 연간 평균 활동 횟수는 1/4에도 못 미치는 29.3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음악 전공 여부가 작업시설 평가나 공연장 이용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앞의 분석 결과와는 대조적이다. 전공자나 비전공자들의 음악 활동 여건은 다르게 체감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음악 전공자의 뮤지션 활동이 훨씬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음악 전공자를 활동에 대한 부담감을 지니고 활동하고 있음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응답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비전공자들이 연간 30회에 불과한 활동에 그치는 점은 다시금 점검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 판단된다.

표 2. 응답자 특성에 따른 음악활동 횟수 차이

		N	평균	F
활동기간	5년이하	30	29.0333	5.465*
	6년이상	31	110.4839	
전공여부	음악전공	16	126.6875	5.170*
	음악비전공	21	29.2857	

* $p < .05$, ** $p < .001$

응답자들의 특성은 음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월평균 수입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음악 활동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 변인은 응답자들의 연령과 활동기간으로 나타났다. 우선 30세 이상의 집단의 월 평균 수입이 20대 이하의 집단보다 수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00$). 또한 활동 기간이 6년 이상이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월평균 수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5$). 주목해야할 부분의 월평균 수입이 높은 집단의 경우도 청년유니온의 조사 결과[17]와 유사한 수준인 월 평균 수입이 60만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특히 29세 미만인 응답자의 월평균 수입은 38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는 음악 활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입만을 측정한 것이긴 하지만, 직업인으로서의 인디 뮤지션 삶이 얼마나 녹록치 못한가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응답자들은 부족한 생활비를 레슨, 강의,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충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성별, 학력, 전공 여부, 솔로 등의 활동 형태는 수입과 유의한 관계를 지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 기간이 긴 집단의 경우 음악 활동 횟수 역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수입에 차이를 보인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음악 전공자의 경우, 활동 횟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으로 분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에서는 비전공자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이는 음악 전공 뮤지션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여건 속에서 활동하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는 것으로, 향후 관찰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다.

표 3. 응답자 특성에 따른 월평균 수입차이

		N	평균(만원)	F
연령	29세이하	38	12.00	25.860*
	30세이상	39	59.56	
활동기간	5년이하	45	22.80	6.341**
	6년이상	56	43.84	

*p<.000, **p<.05

4. 인디뮤지션의 만족도

인디뮤지션의 만족도는 공적 지원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정, 예술인으로서의 다양한 활동, 창조적 결실을 맺을 수 있는 환경 등이 결부될 때 높아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검증하기 위하여 작업시설, 공연장 이용, 음악 활동 횟수, 음악활동수입, 사회적 인정, 지원 수혜 경험이 응답자들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단계적 회귀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본격적인 회귀분석에 앞서, 독립변인간 상관관계를 측정하였다. 성별, 연령, 학력, 전공여부, 활동기간, 음악 활동 형태 등 6개 응답자 배경 변인의 영향력을 통제한 후, 각 변인간의 편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50석 이상 공연장 이용, 50석 미만 공연장 이용의 두 변인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발견되었다. 독립변인간 높은 선형 관계가 존재할 경우, 다중공선성을 의심할 수 있으며,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독자적인 영향력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 두 변인 중 50석 이상 공연장 기회 변인을 제외한 뒤, 나머지 독립변인을 회귀분석에 투입하였다.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종속 변인인 인디뮤지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 변인은 사회적 평가, 음악 활동 횟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1단계 회귀 분석에서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음악 활동 횟수로 나타났다(p<.05). 1단계 회귀식의 수정된 R²는 .075으로 비교적 낮은 설명력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음악 활동 횟수가 많을수록 응답자들의 만족도 역시 높아짐을 알 수 있다. 2단계 회귀식에 투입된 변인은 사회적 인정으로(p<.01),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느낄수록 응답자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정된 R²는 다소 증가하여 .138이었다.

이외의 독립 변인인 작업 시설, 공연 시설, 수입, 지원 수혜 경험은 뮤지션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악활동수입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흥미롭다. 이는 적어도 자발적으로 공평을 선택한 인디뮤지션들에게는 수입이 충족감을 좌우하는 요인이 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지원 수혜 경험 역시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도 주목할 만하다. 공적 지원은 자원의 공평한 분배라는 대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인디뮤지션 개개인이 체감할 만한 수준의 전폭적 지원은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러한 제도적 특성이 인디뮤지션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만드는 듯하다. 국내의 지원 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은 비단 인디뮤지션뿐만 아니라, 국내 창조 영역의 종사자들이 공통적으로 체감하는 부분인 듯하다[42]. 공적 지원만으로는 예술인의 충족감을 장려하기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공적지원과 더불어 공연 기회를 확충하고, 인디뮤지션 가치를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힘을 집결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4. 인디뮤지션 만족도 회귀분석 결과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df	F	Adjusted R ²
		B	표준오차				
1 단계	(상수)	2.798	.139		1	5.323	.075
	음악활동 횟수	.003	.001	.305*			
2 단계	(상수)	2.140	.329		2	5.258	.138
	음악활동 횟수	.004	.001	.354**			
	사회적인정	.378	.172	.284*			

제외된 변수						
모형	베타 입력	t	유의확률	편상관계수	공선성 통계량	
						공차
1 단계	총수입	.043	.325	.746	.045	1.000
	지원수혜경험	.000	.003	.997	.000	.998
	사회적평가	.284	2.192	.033	.293	.969
	공연장이용	-.030	-.223	.824	-.031	.951
2 단계	작업시설이용	.162	1.171	.247	.162	.901
	총수입	.046	.361	.719	.051	1.000
	지원수혜경험	.011	.088	.930	.012	.996
	공연장이용	-.081	-.604	.549	-.085	.925
	작업시설이용	.121	.889	.378	.125	.881

*p<.05, **p<.01

V. 결론 및 제언

인디뮤지션에 대한 사회적 의미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문화적 쏠림 현상 속에서 인디 문화가 추구하는 다양성, 예술성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투영하는 것이며, 인디뮤지션에 합류하는 젊은 층을 위한 배려가 담긴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인디뮤지션을 학술적인 차원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는 매우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인디뮤지션을 위해 마련된 지원제도에 대해서는, 지속성에 대한 고민은 차치하더라도, 성과 평가조차 제대로 이루어진 바가 없는 듯하다.

이러한 반성에서 출발한 본 연구는 국내 인디뮤지션 개인의 삶에 한 걸음 다가가, 음악 환경, 음악 활동의 특성을 살펴보고, 인디뮤지션의 만족감을 구축하는 요인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105명의 인디뮤지션에 대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 이들에 대한 이해를 통해 국내 인디뮤지션 정책의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우선, 음악 환경에 대한 분석 결과,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작업 시설이 부족하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50석 이상의 공연장을 이용할 기회가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뮤지션 활동 경력이 짧은 집단과 솔로로 활동하는 뮤지션에게 대형 공연장의 이용 기회가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력이 긴 집단, 음악 전공 집단이 상대적으로 활발한 음악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력이 긴 집단과 연령이 높은 집단은 수입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활동 경력이 6년 이상인 집단의 경우, 대형 공연장 공연 기회가 많으며, 음악 활동 수와 수입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정리된다. 이는 인디뮤지션은 적어도 6년 이상을 버스킹이나 소극장 공연을 통해, 간간히 수용자와 만나면서 저소득을 견뎌내야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문제는 6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인디뮤지션조차 저소득의 굴레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들의 월 평균 소득은 60만 원 정도로, 일상을 꾸리기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에 그치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점은 음악 활동 수입이 인디뮤지션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들이 인디뮤지션이라는 궤도를 선택하는 순간부터 이미 경제적 풍요로움은 포기했음을 시사하며, 어차피 생존을 유지하기 힘든 음악 수입에 의지하기 보다는 시간제 아르바이트와 레슨 강사를 오가며 썩썩하게 뮤지션의 삶을 개척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인디뮤지션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2011년 대대적 공모를 통해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수혜 경험은 인디뮤지션의 만족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 지원이 수혜자들에게 체감되지 못하는 것은 지원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며, 실제로 지원의 영향력이 미미한 탓일 수도 있다. 물론 몇 가지 지원 제도가 전체 인디뮤지션의 만족감을 향상시켜 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혜자들에게 체감되는 효용이 낮다면 제도적 개선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들에게 인디뮤지션의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는 요인은 음악 활동 횟수와 사회의 인정으로 나타났다. 음악 활동을 활발하게 할수록,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느낄수록 예술인으로서의 만족감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정책적으로 적지 않은 함의를 지닌다. 첫째, 다양한 공연 기회 확충에 인디뮤지션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것이다. 인디뮤지션을 위한 교육 제도 확충이나 해외 공연 기회와 같은 거창한 지원제도의 도입도 필요하겠지만, 이보다는 실질적으로 현재 활

동하고 있는 인디뮤지션들이 크고 작은 공연을 통해 대중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실질적으로 본 연구를 위해 전문가와 별도의 심층 인터뷰를 진행한 바에 의하면,¹ 인디채널 등 공식 창구 설립을 통해 대중에게 노출되는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즉, 다양한 채널을 통해 대중과의 조우 기회를 확장하고, 이를 통해 인디뮤지션들이 사회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인디뮤지션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크게는 오프라인 공연 기회부터, 작게는 통신사 음원 서비스에 인디뮤지션 카테고리를 별도로 마련하는 것까지 세밀한 정책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국내 인디뮤지션 지원 제도는 시장과 시민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제공되는 지원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다. 직접적인 공적 지원은 다수의 뮤지션이 광범위하게 체감할 수 있는 규모로 이행되기 어려우며, 수혜자들에게도 유효한 만족감을 주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32]. 정부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무모한 책임감, 혹은 모든 것을 해야 한다는 가부장적 사고와 결별하고, 다양한 부문과의 조율을 통해 인디뮤지션의 창작을 독려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전문가들의 인터뷰에 의하면, 부분별한 공적 지원의 확대는 지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음악하기 좋은 공연장이 부족할 뿐, 뮤지션들이 설 수 있는 무대는 충분하며, 인디뮤지션을 위한 문화지구 설립 역시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 전망한다. 문화지구 설립은 불필요한 지대 상승만 유도할 뿐 뮤지션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없다는 분석이다. 또한 정부가 무료공연 등을 확대하는 것은 공연 시장 구조의 건전성을 오히려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양해야 할 것이라 지적한다.

셋째, 인디뮤지션의 경제적 여건을 개선하고 재정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재원 조달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펀딩 등 대안적인 재원이 인디뮤지션 분야에서 활

발히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협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문화적 강자이지만, 사회적 약자인 인디뮤지션들이 기본적인 사회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술인복지제도를 확충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직접적인 금전적 지원에는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심층 인터뷰에 응한 전문가들에 의하면, 직접 지원보다는 음원 수익 구조의 정상화가 선결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볼 때, 인디뮤지션 시장의 선순환적 구조 변화가 전제되지 않을 경우, 정부의 지원은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성과에 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양한 플랫폼과 활발한 음악 활동을 통한 대중과의 조우 기회 확대, 음악의 다양성을 향유하는 사회 분위기 확충, 음원 수익 구조의 정상화 노력이 지원 사업과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무분별한 문화지구 도입이나 무료 공연 확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자세를 지녀야 할 것이다.

창의력이 재산이 되고, 다양성이 힘이 되는 시대이다. 우리 사회의 한 칸에 머물던 인디뮤지션들이 보다 건강하게 활동하고, 직업인으로서 자존감을 지니게 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보하는데 보탬이 될 것이다. 앞으로 이들에 대한 연구가 활력을 얻고, 정책을 위한 지혜가 모여가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모집단 실체를 파악하기 힘든 인디뮤지션을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본 연구가 근본적 한계를 지닐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인디뮤지션 리스트를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지만, 이들이 국내 인디뮤지션을 대표한다고 확신하기 어려우며, 이는 연구 결과의 일반화 문제로 직결된다. 인디뮤지션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연구들이 대부분 지니고 있는 표본의 대표성, 일반화의 문제가 본 연구에서도 반복되는 점은 연구의 한계로 남기고자 한다. 이러한 한계는 향후 연구들을 통해 검증되고 개선되기를 기대하며, 인디뮤지션 개인의 삶과 지원제도의 평가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기를 기대한다.

1 전문가는 심층인터뷰는 인디레이블대표(남/40대), 실용음악과교수(남/40대), 지상파방송 음악프로그램 PD(남/30대)의 총 3인과 실시하였으며, 2015년 2월부터 4월 사이에 이루어졌다.

참 고 문 헌

- [1] 안정일, “음악시장 활성화를 위한 음원저작권의 합리적 가격 제도와 징수체제, 대중음악산업의 현 쟁점과 대안 찾기,” *문학과학*, pp.145-177, 2012.
- [2] K. Shaw, “Independent creative subcultures and why they matter,” *International Journal of Cultural Policy*, Vol.19, No.3, pp.333-352, 2013.
- [3] R. Strachan, “Micro-independent record labels in the UK: discourse, DIY cultural production and the music industry,” *European Journal of Cultural Studies*, Vol.10, pp.245-265, 2013.
- [4] 김기덕, 최석호, “창조경제시대의 한국대중음악산업 수직계열화와 생산시스템 분석 2000-201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6호, pp.43-53, 2014.
- [5] 유승중, “한국 대중음악산업의 구조적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2010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2010.
- [6] S. Homan, M. Cloonan, and J. Cattermole, “Introduction: popular music and policy,” *International Journal of Cultural Policy*, Vol.19, No.3, pp.275-280, 2013.
- [7] 심두보, “케이팝 (K-pop)에 관한 소고,” *사회과학교육*, 제52권, 제2호, pp.13-28, 2013.
- [8] C. McAuliffe, “Selling secret lives: subcultures and cultural vitality,” *Overland*, Vol.174, pp.103-105, 2004.
- [9] 유승호, “문화산업에 있어 '인디'공동체의 위상에 대한 고찰,” *문화정책논총*, 제12권, pp.47-61, 2000.
- [10] 안혜영, *2000년 이후 인디 레이블의 영향력 및 활성화에 관한 연구: 한국 가요의 다양성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상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 [11] I. M. Young, “The ideal of community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 In L. Nocholson, (ed.) *Feminism / postmodernism*, London:Routledge, pp.300-323, 1990.
- [12] 이정영, “홍대 앞 인디음악 씬의 문화경제,” *대중음악*, 제6권, 제11호, pp.68-96, 2010.
- [13] R. Burnett, *The global jukebox: the international music industry*, London: Routledge, 1996.
- [14] S. Frith, *Sound effects: youth, leisure and the politics of rock'n'roll*, New York: Pantheon, 1981.
- [15] 김미나, *한국 인디음악과 인디뮤지션 지원프로그램의 예산 규모 및 집행현황 연구 최근 3년간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상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 [16] 이충환, “무중력 시대, 예술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유자살롱의 음악치유 프로그램 사례,” *한국예술연구*, 제7호, pp.73-93, 2014.
- [17] 이규탁, “장르 브랜딩(Branding):모타운 소울(Motown Soul)과 케이팝(K-Pop)의 이미지 형성 전략,” *한국대중음악학회 정기학술대회*, 2014.
- [18] 성완경, *홍대 앞 인디문화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5.
- [19] 박근서, “테크노, 힙합, 하드코어- 대중음악의 세 가지 키워드,” *저널리즘 비평*, 제31권, pp.64-72, 2000.
- [20] 유지연, “한국의 라이브 콘서트 소비 경험과 딜레마,” *한국대중음악학회 정기학술대회*, 2014.
- [21] 김수아, “버벌진트와 빈지노 읽기: 한국 힙합, 남성성 그리고 여성 팬덤의 구성,” *한국대중음악학회 정기학술대회*, 2014.
- [22] 장미혜, 이충환,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의 음악소비-소유에서 향유로, 전유에서 공유로,” *한국사회학회 한국언론학회 특별공동학술회의*, pp.173-197, 2006.
- [23] 서정민갑, “인디음악의 종 다양성과 비주류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언들, 대중음악산업의 현 쟁점과 대안 찾기,” *문학과학*, pp.145-177, 2012.
- [24] 송예화, 최준란, 김상현, “인디음악의 상업적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 춘계종합학술대회*, 2013.
- [25] 청년유니온, *청년뮤지션 생활실태 조사*, 2011.
- [26]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http://www.mcst.go.kr/>

- web/s_notice/news/newsView.jsp?pSeq=1532
- [27] 오양열, “제도의 변화: 한국 문화예술 공공지원 정책의 변화와 현재, 제도의 팽창, 창의적 동기 : 예술가 공적 지원의 쟁점,” 서울문화재단 세미나 자료, 2013.
- [28] 박준흠, “한국 대중음악의 현재 지형 2-‘인디레 이블’을 통해서 살펴본 음악창작자들의 지형도,” 문화과학, 여름호(통권54호), pp.241-261, 2008.
- [29] 이동연, “대중음악산업 지원체계의 새로운 대안, 대중음악산업의 현 쟁점과 대안 찾기,” 문화과학, pp.145-177, 2012.
- [30] D. Hesmondalgh, *The cultural industries*, Los Angeles, CA:Sage, 2013.
- [31] M. Cloonan, “Steering a review: some reflections on a gig,” *International Journal of Cultural Policy*, Vol.19, No.3, pp.318-332, 2013.
- [32] L. Petrova, “How different financial modes condition artistic motivation, 제도의 팽창, 창의적 동기 : 예술가 공적 지원의 쟁점,” 서울문화재단 세미나자료, 2013.
- [33] M. Rengers and E. Plug, “Private or Public?,” *Journal of Cultural Economics*, Vol.25, No.1, pp.1-20, 2001.
- [34] K. V. Mulcahy, “Cultural policy : Definitions and theoretical approaches,” *The Journal of Arts Management, Law and Society*, Vol.35, No.4, pp.319-330, 2006.
- [35] D. O’Brien, “Measuring the value of culture: a report to the 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 London DCMS, 2010. Available from <http://www.culture.ov.uk/publications/7660.aspx>
- [36] J. Street, “Music, markets and manifestos,” *International Journal of Cultural Policy*, Vol.19, No.3, pp.281-297, 2013.
- [37] V. Alexander, “Pictures at the exhibition: Conflicting pressures in museums and the display of art,”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101, pp.797-839, 1995.
- [38] 조중걸, “공적지원과 창조성의 인과율: 국가 예술지원의 사적 예증, 제도의 팽창, 창의적 동기 : 예술가 공적 지원의 쟁점,” 서울문화재단 세미나 자료, 2013.
- [39] B. S. Frey, “State support and creativity in the arts: Some new considerations,” *Journal of Cultural Economics*, Vol.23, pp.71-85, 1999.
- [40] R. Caves, *Creative Industries: Contracts between arts and commerc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02.
- [41] B. Frey and R. Jegen, “Motivation Crowding Theory: A Survey of Empirical Evidence,” *Journal of Economic Surveys*, Vol.15, No.5, pp.589-611, 2001.
- [42] 정윤경, 김미선, “국내 창조산업 콘텐츠 진흥정책의 동기구축효과에 관한 연구 - 수혜자 만족도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1호, pp.210-220, 2013.

저 자 소 개

정 윤 경(Yoon-Kyung, Chung)

정회원



- 1987년 2월 : 이화여대 영문학과 (문학사)
- 1990년 5월 : Univ. of Texas at Austin, Journalism(문학석사)
- 2001년 2월 : 이화여대 신문방송학과(문학박사)

- 2002년 2월 ~ 2005년 8월 : 한국방송산업진흥원, 책임연구원 및 산업진흥센터장
- 2005년 9월 ~ 현재 : 순천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관심분야> : 콘텐츠진흥정책, 멀티플랫폼 콘텐츠 유통

진 경 란(Gyongran, Jeon)

정회원



- 1990년 2월 : 이화여대 신문방송학과(문학사)
- 1992년 2월 : 서강대 신문방송학과(문학석사)
- 2003년 2월 : 이화여대 신문방송학과(언론학박사)

- 2005년 4월 ~ 2006년 8월 : 문화방송, 전문연구위원
- 2006년 9월 ~ 현재 : 동의대학교 디지털문화콘텐츠학전공 교수

<관심분야> : 디지털문화, 콘텐츠미학, 스토리텔링

김 중 하(Jongha Bell Kim)

정회원



- 1995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정치학사)
- 1999년 2월 : 고려대학교(문학석사)
- 2008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언론학박사)

- 현재 : 한라대학교 미디어콘텐츠학과 교수

<관심분야> : 스마트미디어, 콘텐츠비즈니스, 콘텐츠 디자인